■민족문화연구 제94호(2022.2.28.),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459-485.
http://doi.org/10.17948/kcs.2022..94.459

이인직의 「모란봉」과 생태학적 생명의 규범
—누스바움의 『감정과 법』에서 보이는 것—

다지리 히로유끼(田尻浩幸)*

목 차

1. 서론
2. 보은의 논리와 이인직의 정견
3. 이기적이고 여린 자아에 머무르는 장치일과 서일순
4. 갈등하는 옥련모와 옥련
5. 공명하는 김옥련과 구완서
6. 결론

국문초록

이인직은 문명화된 근대 '사회'라는 새로운 장과 그 속에서 적합한 '공감'의 감정을 작품으로 형상화하는 데 힘썼다. 이인직은 「모란봉」에서 선악관념이 도덕의 기초로서의 공감과 상호작용에서 비롯되었음을 제기하였다. 옥련은 계층에 얽매이지 않는 인간의 사회적 자연인 윤리도덕에 대한 '신념'을 추구한다. 반면 가부장제 사회의 남성중심적 문화와 규범에 물든 장치일이나 옥련에 대해 자기중심적인 소망을 지닌 서일순은 타인을 지배하려는 욕망이 좌절될 때 나르시시즘적 수치심(주관주의에 의한 독아론적 에고이즘)을 드러낸다. 서일순과의 혼인문제를 둘러싼 옥련의 어머니와 옥련의 갈등은 종속집단에 대한 배제를 기반으로 하는 전통적, 유교적 사회규범(옥련모)과 모든 사람을 계층에 얽매이지 않고 평등하게 대하는 인간적, 자연적 윤리도덕(옥련)의 대립을 보여준다. 미국에서 사회를 학습하고 자아를 구축한 구완서와 옥련은 자신과 상대

*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박사.

를 대등하게 대하는 호혜적 행동양식인 연민과 공감 능력에 기초한 쌍방향적, 상호작용적인 자연주의의 생명 규범을 체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모란봉」이 추구하는 바는 '비분강개의 정치'에서 '연민과 사랑을 전경화시킨 정치'로의 전환으로 풀이된다.

주제어: 감정, 신체, 생태학적 심리학, 신념, 공감, 은혜, 동일화, 상호작용, 누스바움, 수치심, 나르시시즘, 이기주의, 동물, 은혜, 러일전쟁, 사상.

1. 서론

「모란봉」은 "교묘한 의량을 다 하야"[1] 창작된 작품이었지만 최여정은 미국으로 향하고 서숙자는 서울의 구완서 집으로 "옥련이의 먼저 정하였던 혼처를 반간(反間)하러 다니"며 권모술수[2]를 획책하는 판에 이야기가 중단된다. 중단의 이유에 대해서 김윤식은 "정치소설의 안목을 지닌 작가"가 "권모술수를 일삼는 서숙자를 주인공 격으로 부상"시킨 소설을 계속 쓸 수가 없었던 탓이라고 한다.[3] 소설의 중단으로 김옥련의 영웅 소설적 활약에 대한 독자들의 기대는 배신당한 셈이다. 그 결과 「모란봉」에는 병합 후 이인직의 "정치소설의 안목"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최진옥은 『신소설에 나타난 법의식 연구』에서 "민법의 변화에 가족질서의 변화라는 일련의 국내외 질서의 전환 속에서 신소설 작가들이 당대 현실의 변화를 '법'에 대한 인식과 감각의 변용 속에서 어떻게 서사화하고 있는지 고찰"하면서 병합 후 이인직의 "정치소설의 안목"을 읽어내고자 시도했다. 그에 따르면 「모란봉」의 "옥련은 구완서와의 정혼을 파약하지 못하는 이

1) "교묘한 의량을 다 하야", 「雙玉淚의 次에는 牡丹峯」, 『매일신보』, 1913.2.4.
2) 元良은 유교에서는 윤리와 정치를 동일선에서 논한 결과 자칫 영웅호걸적 권모술수 사상을 윤리 사상에 혼동하는 풍속이 일본 윤리 사상계에 깔려있다. 이는 본위가 아닌 우연히 윤리 속에 혼입된 하나의 악습이지 교리 정신이 아닌 것은 명백하다고 하여 사람을 속이는 행위인 권모술수의 '반간'을 비판하였다. 元良勇次郎, 「「愛と心」の小説について」, 『小說 愛と心』, アプレウス原著(戶澤姑射 譯), 勉强堂書店, 1901년 ; 監修 大山正, 『元良勇次郎 著作集 第9卷』, クレス出版, 2015, 412면.(以下, 『著作集 第 卷』). 또한 이인직은 "아침에는 동쪽, 저녁에는 서쪽으로서 기회를 보고 세력이 있는 쪽에 붙는 사람은 박취당이다"라고 편복당을 비판했다. 「한국의 사색사당」, 田尻浩幸, 『이인직 연구』, 국학자료원, 2006, 357면.
3) 김윤식, 『한국 근대소설사연구』, 을유문화사, 1986, 31면.

유로 '다만 믿을 신자를 지키는' 것임을 제시"하고 "정혼을 '신의'라는 규범 속에서 파악하고 있"다.[4] 이는 1913년이라는 병합 후의 상황에서 "신의에 의한 근대적 계약관계를 강조하는 이인직의 태도"를 보여준다. 옥련의 '신의'에 대한 강조는 (일본이 조선에 대해 했던) "계약(자주독립)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자신(이인직)의 입장에 대한 명분" 또는 "우회적으로는 자신의 신뢰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신의를 저버린 상대에 대한 비판"이다. 보호국 시기에 창작된 『혈의 누』가 청일전쟁을 서사적 시간대로 설정해 "자주의 문제를 강조"했듯이 병합이 확정된 뒤의 「모란봉」에서는 러일전쟁 시기를 서사적 시간대로 하여 "계약(언약)의 신의"를 강조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모란봉」의 옥련은 공원 연못의 물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들여다보며 다음과 같이 독백한다.

> 네가 형체가 있는 물건(有形物)이냐, 형체가 있을진대 네 손에 잡고 반겨 보자. 네가 형체 없는 물건 (無形物)이냐, 형체가 없을진대 내 눈에 보이는 네가 무엇이냐. 이 몸이 이 물가를 떠날진대 네 형체가 소멸하고, 이 몸이 이 세상을 버릴진대 한(恨) 많고 사려증(思慮症) 많던 내 마음도 또한 소멸할 것이니, 영혼불멸(靈魂不滅)이라 하였으니 알 수 없는 것은 사람의 일이로다.

위의 인용문에서 일찍이 '영혼불멸'이라 한 인간의 영혼은 심리학적 형질이 지닌 심적 성질(사려증)과 물적 성질(신체)을 포함한 불가지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영혼(soul)은 신체나 마음(mind), 무의식적인 것이 아직 분류할 수 없는 영역에서 인간과 동물의 구별을 없앤다. 예를 들어 어떤 종류의 느낌과 특정 신체 행위(인간의 경우는 얼굴 표정)가 결합된 것이 감정표현이다. 감정표현은 동종 개체 간에 '공감'의 사회 능력에 인과적 효력을 발휘한다. 즉 공명적(共鳴的)인 신체적 관계로서의 공감능력은 도덕성의 기반이다.[5] 따라서 이인직은 문명화된 근대 '사회'라는 새로운 장과 그 속에서 적합한 '공감'의 감정을 작품에서 형상화하는 것에 노력했다. 이렇게 신체적인 것을

4) 최진옥, 「신소설에 나타난 법의식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5. 41-44면.
5) 河野哲也, 『善惡は實在するか アフォーダンスの倫理學』, 講談社, 2007, 122면.

중요시하는 생태학적 심리학은 데카르트적 정신실체론(정신이 신체로부터 독립적으로 그 자체로서 존속될 수 있다는 설)인 인간 중심의 주관주의적 표상(내적 이미지)주의와 대립했던, 다윈에서 윌리엄스 제임스로 이어지는 '언더그라운드 심리학'의 계보 위에 놓여 있었다.[6]

본고에서는 「모란봉」에서 작가의 정치소설적 안목을 읽어내는 데 동의하면서도, 누스바움의 도덕 이론을 빌어 선행연구와는 다른 해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누스바움은 『감정과 법』[7]에서 감정은 비합리적이며 감정을 배려하는 것은 항상 잘못이라는 입장을 비판한다. 동정, 비탄, 공포, 분노와 같은 감정들은 우리가 공동의 인간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따라서 감정적 반응을 포기하는 것은 인간의 대부분을 포기하는 것이다. 법의 기초도 감정에 있다. 법의 기초가 되어야 할 선한 감정은 인간 평등을 침해하는 자에 대한 분노와 타인에 대한 공감이다. 법의 기초가 되지 말아야 할 나쁜 감정이란 혐오감과 치욕이다. 혐오감은 어떤 대상이 자신을 열등하게 만든다고 간주하는 데서 비롯된다. 예컨대 배설물은 인간이 동물적 존재에 불과하며 덧없이 늙어 죽어야 할 여린 존재라는 것을 환기시킨다. 인간의 동물성이나 취약성은 자명한 것이지만, 혐오감은 그 자명성을 숨겨 버린다. 누스바움의 목적은 누구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인간이란 것'의 의미를 성찰하는 것이었다. 누스바움의 도덕 이론은 인간과 동물의 심적 성능은 연속적이어서 양자 사이에 뚜렷한 경계는 없다고 보는 생태학적 심리학의 계보를 따른다. 데카르트적인 마음의 개념은 플라톤적이고 실체론적인 존재론을 상정하고 있다. 존재론이란 세계에 어떤 것이 존재하고 있는지에 관한 철학적 논의이다. 실체란 아무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그것만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실체는 절대적인 존재이며 본질은 다른 것과의 관계성에서 변화할 수 없

6) エドワード・S・リード, 村田純一・染谷昌義・鈴木貴之 譯, 『魂から心へ 心理學の誕生』, 講談社學術文庫, 2020, 99면.

7) マーサ・ヌスバウム, 河野哲也 外譯, 『感情と法－現在アメリカ社會の政治的リベラリズム』, 慶應義塾大學 出版會, 2010, 444면. 인간의 취약함에 반응하여 생기는 혐오감의 감정은 '인간/동물'(수치일 경우 '정상/이상')의 구분에 의한 계층을 이루고 사회생활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현저한 공격을 야기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다. 이 존재론적 전제에서 필연적 귀결로서 세계에서 분리된 주관(독아론)이 생겨난다. 한편 생태학적 심리학은 사상(event)의 개시와 종료의 과정의 존재론을 채택한다. 과정의 존재론은 존재의 기본단위를 변화로서의 사상, 혹은 그 연속적인 추이로서의 과정에서 찾는다. 세계는 서로 고립된 불변의 실체(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변화를 포함한 현상의 연속체로 이루어져 있다. 동물의 행동은 그 신체를 포함해 환경에서의 하나의 사상으로서 전체적으로 파악된다. 인간의 개별적 가치와 도덕은 환경 속에 실재한다. '실재한다'는 것은 가치가 주관의 인식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기를 인간의 내면으로 환원하는 발상이 아닌 행위의 동기부여는 어떤 사상의 궁극적 원인이 발생한 장소(locus≒환경 편에 존재하는 여러 '동기')에 대한 인식에서 생긴다. 이 인간(동물)의 행동 장면을 존재의 기본으로 삼는 사고방식은 문학 연구 분야에서는 오래전부터 볼 수 있다.[8)]

이 글에서는 먼저 2장에서 옥련의 '믿을 신자'가 의미하는 것이 옥련의 행위나 판단, 평가의 토대가 되는 사회적 규범에 대한 '신념'에 있음을 밝히고, 「모란봉」에서 한국의 독자들이 병합이라는 나쁜 전망에 대해 갖는 두려움과 분노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일본의 문명을 수입하려는 작가의 정치적 의도를 읽어낸다. 3장에서는 주로 누스바움의 유아 성장과정설에 따라 장치일과 서일순의 독아론적 에고이즘을 분석한다. 4~5장에서는 변화하는 세계에서 옥련과 다른 주요 인물과의 상호작용적, 관계론적 양상(옥련모에 대한 옥련의 규범, 구완서와 김옥련의 평등주의)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병합 후 이인직의 윤리도덕 상의 '신념'(정치소설의 안목)이 어떻게 형상화되었는지 살펴본다.

2. 보은의 논리와 이인직의 정견

세속화 이전의 자급자족적 공동체 시대에 은혜는 꼭 갚아야 하는 것이며 자신이 갚지 못하면 자녀에게 그 보은의 의무가 이전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도덕의 규범성은 (선한 것이든 나쁜 것이든) 상대방에게 받은 대로 되갚

8) 河野哲也, 『エコロジカルな心の哲學 - ギブソンの實在論から』, 勁草書房, 2003, 126면.

고 상대와 대등해지려는 인간들의 사회적 본성이 상호작용하면서 비롯되었다. 이 상호작용의 두 가지 측면, 보은과 복수는 동일하게 교환의 원리에 기초해 있다.[9] 「모란봉」에서도 구완서에 대한 옥련의 '은혜'를 비롯해 '은혜'라는 말이 54번이나 나온다. 그러나 최여정은 "은인" 같은 서일순을 "기화(奇貨)로 이용"하려고 한다. 그리고 서숙자의 남편이었던 "자기 집 행랑에 들었던 허첨지"에게 "보뜰논 두 섬지기와 돈 이십 원"[10]을 대가로 옥련댁에 불을 지르게 한다. 또 서숙자(하늘밥 도둑)는 자신의 부정한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가난한 과부에게 베푼 은혜를 이용한다. 옥련 역시 서일순과의 혼인을 거부하기 위해 고장팔 모자에 대한 보은의 의무를 명분으로 내세운다. 그런데 최여정이 비참한 허 노인에게 베푼 은혜를 빌미로 옥련의 집에 불을 지르도록 하는 것과 옥련이 가난한 고장팔 모자에 대해 보은의 의무가 있음을 이유로 내세워 서일순과의 혼인을 거부하는 태도는 구별해 볼 필요가 있다.

최진옥은 옥련의 주장에 대해 "서일순의 재물이라는 '이익'을 얻고자 '보은'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신의를 저버린 혼사를 강행하고자 하는 모친의 배신을 비판하는 논리가 들어 있"[11]다고 해석하면서, 옥련이 주장하는 '신(信)'

---

9) 복수에 대해서는 『귀의 성』에서 볼 수 있었다. 河野哲也, 앞의 책, 2007, 141면.

10) (최)"이 못생긴 사람아, 내 말만 들으면 평생에 밥 굶지 아니하고, 늙은 마누라 손에 잘 얻어먹고 살 터인데 (…)."
(허)"젊은 계집 버리고 늙은 계집의 손에 얻어먹으면 덕 본다 할 것 무엇 있습니까?"
(최)"또 못생긴 소리만 하는구. 먹고 사는 재물이 좋은가? 빌어먹더라도 젊은 계집만 있으면 좋은가? 만일 재물은 있든지 없든지 젊은 계집을 데리고 사는 것이 좋다 할 지경이면 돈 한 푼 아니 줄 터이니 서숙자만 데리고 어디 가서 살게."
(허)"작년 구월부터 떨어진 계집이라 다 제집에 와서 살겠습니까?"
(최)"자네 계집 노릇을 하고 아니하는 것을 내가 아니? 시키는 대로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돈 한 푼 주고 싶지도 아니하고, 빌어먹다가 논 두덕을 베고 죽더라도 불쌍할 것 없어. 꼴 보기 싫으니 내 눈에 보이지 말고 어디로 가게."
(허)"잘못하였습니다. 시키는 대로 할 터이니 먹고 살도록 도와 줍시오."
(최)"허허허, 사람은 참 진실하여 (…) 저렇게 변치 아니하는 고로 내가 심복으로 알지. 두말 말고 오늘 밤에 시킨 일만 잘하고 오면, 오늘 밤 내로 약조한 논문서와 별상급으로 돈 이십 원을 줄 터이니 내일 새벽 떠나서 전라도 무주 무풍으로 들어가 살게. 자네 마누라는 그 논을 가래질 다 시켜 놓고 자네 가기만 기다리고 있을 터일세. 자, 어서 가서 맡은 일만 하게." 이인직, 권영민 교열, 『혈의 누』, 서울대 출판부, 2001, 120-121면.

11) 최진옥, 앞의 글, 2015, 42면.

의 의미가 '신의'라고 단정한다. 즉, 옥련은 구완서와 파약할 수 없는 이유로 "다만 믿을 신자를 지키는" 것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미가녀(未嫁女)라, 구완서를 위하여 절개 지킬 의리는 없고, 다만 믿을 신자를 지키는 터이라"라는 문장 뒤에는 "구완서에게 믿을 신자를 지키지 못한 죄를 짓더라도 덕의상에 가한 일을 하겠소"라는 문장이 따라온다.[12] 이 구절에 '신의'와 '신념'을 각각 적용시켜 보면 다음과 같다.

> 나는 미가녀(未嫁女)라, 구완서를 위하여 절개 지킬 의리는 없고, 다만 신의를 지키는 터이라.
> 구완서에게 신의를 지키지 못한 죄를 짓더라도 덕의상에 가한 일을 하겠소.

> 나는 미가녀(未嫁女)라, 구완서를 위하여 절개 지킬 의리는 없고, 다만 신념을 지키는 터이라.
> 구완서에게 신념을 지키지 못한 죄를 짓더라도 덕의상에 가한 일을 하겠소.

---

12) 고장팔이는 가난한 상놈이요, 서일순 씨는 재물 많은 양반이라. 가난한 상놈의 은혜는 커도 잊어버리고, 부자 양반의 은혜는 적어도 아니 갚을 수 없단 말씀이오니까? 고장팔이는 불쌍한 인생이라. 작년 가을에 계집 죽고 삼간 초가 팔아먹고 냉면(冷麪)집에 가서 중놈이질을 하고 있다 하니, 남의 신세를 갚더라도 불쌍한 사람에게 먼저 갚을 것이라. 내가 은혜를 갚을 마음으로 고장팔의 계집이 될 지경이면, 구완서가 그 말 듣는 그 날로 내가 고맙다는 편지를 할 사람이라. 내가 장팔의 계집이 되러 가는 날은, 내 손으로 구완서에게 혼인 파약하는 편지를 써도 부끄러운 마음이 없겠소. 만일 다른 사람에게로 시집을 가라 하실진대 미국 대통령의 부인이 되더라도 나는 못 가겠소. **나는 미가녀(未嫁女)라, 구완서를 위하여 절개 지킬 의리는 없고, 다만 믿을 신자를 지키는 터이라.** 만일 구완서가 먼저 파약을 할 지경이면 내 속이 쓰리더라도 어디든지 시집을 가려니와, 내가 먼저 파약은 못하겠소. 고장팔이는 거지된 위인이라. 내 몸을 희생(犧牲)삼아서 거지를 도와주면 덕의상에 가한 일이니, **구완서에게 믿을 신자를 지키지 못한 죄를 짓더라도 덕의상에 가한 일을 하겠소.** 어머니 어찌하리까? 고장팔의 집으로 가라 하시면 지금이라도 가겠소. 어머니, 어머니. 왜 아무 말씀도 아니하십니까? 장팔이도 고맙거니와 장팔어미는 더 고맙습디다. 십 년 동안에 어머니를 뫼시고 고생을 그렇게 한 생각을 하면, 어머니 목숨을 구하여 드린 장팔이보다 더 고맙소. 장팔어미가 없었더면 목숨 살아난 어머니가 차라리 돌아간 신세만 못한 고생을 하고 계실 터이라. 에그 그 외꼬부라지 듯한 늙은이가 (…) 어머니, 내 말이 진정 말이요. 내가 장팔의 계집이 되어서 똥오줌을 받아 내게 돼 장팔 어미를 내 손으로 공양할 지경이면, 참부모의 은혜를 갚은 듯한 생각이 있겠소. 말이 난 김에 얼른 결단합시다. 어머니 마음에 좋으실 것 같으면, 내가 이 자리에서 구완서에게 혼인 파약하자는 편지를 쓰겠소. 일은 크고 작은 것을 교계하는 것이라, **덕의상에 큰일을 조그마한 신용 관계를 돌아볼 수가 없는 것이요.**(142)

"믿을 신자"를 "신의"로 해석할 경우, "신의"란 구완서와 결혼의 "언약(계약)을 지키는" 것, 즉 구완서와 파약할 수 없음을 의미할 것이다. 그렇다면 "구완서를 위하여 절개 지킬 의리는 없"다라는 문장과 "구완서에게 신의를 지키지 못한 죄를 짓"는다는 문장은 상호모순이 된다. 그러나 '믿을 신자'를 '신념'의 뜻으로 이해한다면 윤리도덕상 올바르다고 생각되는 '신념을 지킨다'는 의미가 되고, 또 나중에 언급된 "도덕상의 큰일이라면 작은 신용관계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143)와도 의미가 상통한다. 이런 점에서 옥련이 내세우는 "믿을 신자"는 대상에 대한 비평 판단인 '신념'을 의미하는 것이다. 비평 판단은 어떤 명제를 주위(主位)로 하고 이를 승인 또는 거절하는 마음 전체의 반응을 빈위(賓位)로 하는데 그 반응 안에는 자연스럽게 감정도 포함되어 있다. 감정이 대인 관계적 태도인 한 사회의 위상과 무관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분노란 내적인 흥분상태의 감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대상에 대한 모종의 태도나 자세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어떤 행위에 대하여 부당하다는 사회규범적인 비평 판단과 그러한 행위를 한 타인을 비난하는 태도가 포함된다. 따라서 심리작용은 대상세계와 분리된 주관의 내적 영역에 머무는 사건이 아니라 세계와의 상호작용(관계성=문맥성) 속에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 생태학적 입장에서 인격 동일성이란 다양한 환경과 대치하고 있는 다양한 자신을 조정하는 공감능력에 그 성패가 달려 있다.[13] 이런 맥락에서 이인직의 『모란봉』은, 메리 셸리(Mary Shelley, 1797-1851)가 『프랑켄슈타인』에서 마음의 도덕성 발달 시나리오를 제기[14]했던 것과 같이, 선악 관념이 인간적 자연인 도덕의 기초로서의 공감과 상호작용에서 유래되었음을 제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옥련이 굳이 보은의 논리를 내세운 것은 옥련모의 잘못된 신념을 바꿈(의지적으로 행동을 바꾸게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는 바로 이인직이 일본에 대한 한국인의 부정적 감정을 바꾸기 위해 취했던 방식이기도 했다. 이인직은 「한국신문창설

13) 河野哲也, 『エコロジカル・セルフ』, ナカニシヤ出版, 2011, 43면, 45면, 89면.
14) エドワード・S・リード, 村田純一・染谷昌義・鈴木貴之 譯, 앞의 책, 2020, 101면.

취지서」에서 "근래 정부의 소층돌로 더욱 민간의 감정이 상했기 때문에 일의 대수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이웃 나라의 문명이 금일까지 우리나라에 수입되지 않았"음을 한탄했다. "한국 청년으로서 문명을 사모하는 자가 있더라도 그것에 정부의 불찬성보다는 부모의 반대가 더욱 심하"기에 제대로 문명을 접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을 통한 문명의 수입을 지상과제로 보았던 이인직에게 "그 존숭하는 문명국 사람에게 향해서 악감정을 품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불이익도 비할 바가 없"어 보였다.[15] 이인직은 일본에 대한 한국인의 부정적 신념을 바꿔야 근대 문명을 수입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작가의 이런 관점은 「모란봉」의 역사적 배경인 러일전쟁에 대한 평가와도 이어졌다. 러일전쟁은 「모란봉」 서사 여기저기에 흔적을 남기는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다음과 같은 구절이다.

> 그때는 일로전쟁(日露戰爭) 계엄중(戒嚴中)이라. 철령(鐵領) 큰 싸움은 승부(勝負)가 판단치 못하고 함경북도(咸鏡北道)에는 노서아 정탐(露西亞偵探)이 출몰하고 파라적 함대(巴羅的 艦隊)는 동양을 향하여 나오는 때라. 여인숙(旅人宿)에서 생활상(生活上) 상업(商業)으로 손을 많이 맞아들이나, 그러나 수상한 사람을 보면 극히 조심하는 터이라. 여관에서 사흘을 묵으며, 낮이면 인천항으로 돌아다니며 구경하는 조선 사람들이 씩 수상하다고 연관 주인에게 의심을 받는 사람은, 양복 입은 남자와 조선 복색한 부인이라. 처음에는 동부인하여 다니는 줄 알았더니 부부(夫婦)도 아니오, 색 친구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으로 알았더니 그렇지도 아니한 모양이라. 여관의 방을 둘을 쓰는데, 낮에는 한 방에 모여있고 밤에 잘 때가 되면 각 방에서 자는 터이라. 여관 주인과 하인들이 그 손님 수상하다 하는 것은 두 가지 일이라. 한 가지는 둘이 모여 앉으면 비밀한 수작뿐인데, 여관 하인이 조선말을 모르니 조심할 까닭이 없지마는, 사람만 보면 하던 말을 그친다. 한 가지 일은, 돈 쓰는 모양이 노름판에서 얻은 돈을 개평 쓰듯 아까운 줄을 모르고 쓰는 것이라. 어디로 보든지 종적이 수상한데, 의심 많은 여관 주인의 생각에는 노서아(露西亞) 정탐(偵探)으로 다니는 사람인 줄로 알고, 조심하는 도리에 감추어 두지 못할 일이라고 행인의 숙박계(宿泊屆) 책을 들고 헌병대에 가서 보고한 즉, 조선말 잘하는 헌병 하나가 여관에 가서 조사를 한다. (144-145)

15) 다지리 히로유끼, 앞의 책, 2006, 306면.

인용 부분은 일본이 1905년 3월 10일 봉천회전(奉天會戰)에서 승리할 무렵의 일로 여겨진다. 일본은 러일전쟁에 앞서 1904년 2월 23일 한국 정부에 〈한일의정서〉 체결을 강제했다. '시정개선'에 관한 일본 정부의 '충고'를 수용할 것(제1조), 조선 내에서 일본의 군사행동에 한국 정부가 편의를 제공할 것(제4조) 등의 조항이 포함되었다. 그런데 〈한일의정서〉 제3조에서는 한국의 독립 보장을 약속했다. 이를 근거로 최진옥은 병합 이후 쓰인 「모란봉」에서 옥련이 '신의'를 강조한 것은 러일전쟁을 서사적 시간대로 삼아 한국의 독립을 약속했던 일본을 향해 '계약(언약)의 신의를 강조'한 것이었다고 분석한 바 있다. 그러나 병합 과정에서 이인직이 담당했던 주도적 역할이나 정치적 견해로 보면, 이런 해석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의 실제 정치 행보를 생각하면 오히려 독자에게 일본의 러일전쟁에서의 행위가 불의한 것이 아니었음을 설득하고 한국인의 분노의 감정을 제거하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 여겨진다.

예컨대 러일전쟁에서 일본은 한국 주차군을 창설해 주차 헌병대와 함께 조선의 군사 지배를 맡도록 했다. 일본군이 함경도로 북상하면서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방관의 협력이 필수 불가결했고, 지방관을 일본에 협조적인 인물로 교체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일본은 1904년 10월 함경도에 〈군정〉을 시행하여 지방관 인사에 개입하는 강력한 내정 간섭을 실시하게 된다. 이로 인해 특히 함경도에서는 1905년 '보호국화'와 1907년 내정권 박탈보다 앞선 시기에 일본이 한국의 지방관에 대해 적의를 품고 그 인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한국의 주권을 현저하게 위협하게 되었다. 10월 22일 '노국 탐정의 혐의'가 있는 김승표의 갑산군수 부임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고, 12월 '차남은 노국 통역'이라는 이유로 유병률의 고원군수 부임을 막기도 했다. 이는 '한일의정서'에 포함된 한국의 독립 보장 규정과 배치됨은 물론, 1904년 1월 조선의 국외중립 선언을 무시한 처사였다. 그 결과 러일전쟁은 일본이 한국에서 '전쟁상태를 복류화(伏流化)시킨 식민지 지배'의 기점이 되는 심각한 사태를 초래한다.[16]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함경도를 러시아와의

16) 加藤圭木, 「日露戦争下における朝鮮東北部の「軍政」」, 『一橋社会科学』 第8巻, 2016年10月, 45면.

‘전지(戰地),’ ‘교전지역’으로 간주함으로써 지방관 인사 개입이나 가옥의 ‘무상사용’이 국제법상 ‘합법’이라고 정당화했다. 러일전쟁에 일본 측의 한국어 통역사로 종군하기도 했던 이인직은 일본의 논리에 동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인직은 청일전쟁을 배경으로 한 『혈의 누』에서도 “본래 전시국제공법(戰時國際公法)에 전장에서 피란 가고 사람 없는 집은 집도 점령하고 물건도 점령하는 법이라”라 하여 일본군이 국제법에 부합하게 행동했음을 강조한 바 있었다. 마찬가지로 인용문에서 최여정과 서숙자를 심문하는 일본 헌병과 함경도의 계엄 상황에 대해 「모란봉」의 작가 혹은 서술자는 전혀 부정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오히려 악인인 이들을 취조하는 일본 헌병의 권위를 당연하게 전제하고 긍정함으로써 작가는 러일전쟁시 일본의 내정간섭이 정당했음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3. 이기적이고 여린 자아에 머무르는 장치일과 서일순

누스바움의 유아 성장과정설에 따르면, 사람은 자기충족적인 절대적 나르시시즘에서 출발해 외적 세계를 지각하고 대상을 발견하면서 점차 성장해 간다. 태중의 유아는 영양과 쾌적함의 원천인 모태에 확고하게 연결됨으로써 완전한 지복의 상태에 놓여 있었다. 탄생은 유아를 대상 세계에 노출시키며 원초적인 황금시대를 붕괴시킨다. 세계의 중심이어야 할 자신이 대상에 의해 제약당하며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고 있음을 깨달을 때, 유아에게 수치라는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감정이 생긴다. 이처럼 수치란 인간이 불완전하다는 사실에 직면할 때의 원초적 반응으로서 유아의 전능감과 짝을 이룬다. 자신의 완전성에 대한 욕망, 혹은 타자를 완전히 지배하려는 욕망(주관주의에 의한 독아론적인 자기중심성)의 좌절로부터 수치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인이 되어도 여전히 유아적 나르시시즘에 머물러 있는 이들에게는 유독 수치와 치욕의 감정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들은 때로 자신의 나르시시즘적 세계를 방해하는 자들에 대한 공격을 통해 전능감에 찬 세계를 회복하고자 한다.

「모란봉」에서 가부장제 사회의 남성중심적 문화와 규범에 길든 장치일은 이처럼 병리적이고 나르시시즘적인 수치심을 드러내는 인물이다.[17] 기생 농선은 장치일의 유아적 자존심을 이용하여 장옥련과 어머니 안씨 부인을 자살로 몰아간다. 아래 인용문은 농선이 "인간의 발명치 못할" "남녀 간에 비밀한 관계"에 의하여 "장씨 입에서 안씨 부인이 실행하였다 하는 죄목 선고"를 시키는 데 성공한 후의 장치일과의 대화이다.

(부)"마누라를 보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다."
(농)"발명하실 것 무엇 있소? 보고 싶다 하시기로 누가 샘을 할 터이요?"
(부)"발명하는 말이 아니라, 달아난 계집을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창자 빠진 사람이 있단 말이냐?"
(농)"여보 서방님, 무정한 말씀도 하시오. 여덟 해나 같이 살던 터에 생각이 아니 나면 인정 밖이지요."
(부)"네 말도 그럴 듯한 말이나, 소위 양반의 여편네가 서방질을 하다가 도망질까지 하여 (…) 어떤한 놈을 달고 어디로 갔는지 모르거니와, 내 눈에 뜨일 지경이면 그런 년은 당장에 박살을 하여도 시원치 아니하겠다. 아씨가 다 무엇이냐,~(생략)~"
(농)"~(…)~그 어머니를 책망할지언정 옥련이를 책망할 수가 있소? 여보 내가 옥련이가 되었더라도 요조숙녀(窈窕淑女) 되지는 못하겠소."(84-85)

구시대의 유교적 가부장 사회는 전능하면서도 무자비한 아버지가 우월한 지위에서 가족 구성원을 향해 일체의 의무를 부과하고 명령하는 견고한 시스템으로 이뤄져 있었다. 유아의 정상적인 성장 과정에서는 아이가 부모와의 상호교류를 통해 자신의 불완전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지만, 지나치게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남아에게 결핍이 없는 존재이기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남아는 어머니에 대한 의존이 나쁜 것이며 어머니로부터의 분리나 자립이야말로 성숙이라고 배우면서, 때때로 그들 자신의 감수성이나 놀이 능력 등 인간적인 능력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 나아가 로봇과 같이 자율성이 결여된 '겉치레의 자신'을 구축하는 원인이 된다.[18]

17) マーサ・ヌスバウム, 河野哲也 外譯, 앞의 책, 2010, 226면, 234-237면, 263면, 452면.

「모란봉」에서의 유독 허식과 외모에 초점을 맞춘 서일순에 관한 관상술적 묘사는 바로 그의 이러한 불가시적 내면세계를 들추어내고 있는 듯하다.

> 서일순(徐一淳)의 자는 이문(二문)이요, 별명은 삼부지(三不知)요, 행세는 팔체(八體)라. 삼부지라 하는 것은 세 가지 알 수 없는 일이 있다는 말인데, 한 가지는 서씨의 나이 이십일 세가 되었는데 장가는 무슨 지조가 있어서 아니 드는지 알 수 없는 일이요, 돈은 썩 잘 쓰는데 재산은 얼마나 가진 사람인지 알 수 없는 일이요, 풍치는 무한히 있는데 평양 기생 하나 상관 아니 하는 것이 알 수 없는 일이라. 팔체라 하는 것은 여덟 가지 잘하는 것이 있는 체한다는 말인데, 글귀나 하는 체, 글씨 줄이나 쓰는 체, 묵화(墨畵)도 좀 치는 체, 갖은 음을 다 잘하는 체, 말 잘하는 체, 신학문도 좀 있는 체, 의협심(義俠心)도 있는 체, 개화한 체, 그러한 팔체 중에 입내는 다 낼 뿐 아니라 말은 참 잘하는 변사(辯士)이라. 본래 의주(義州) 사람으로, 삼 년 전에 그 부친이 죽은 후에 경성(京城)으로 이사하여 사는데, 수일 전에 구경차로 평양에 와서 두류하는 터이라. 얼굴은 冠玉 같고, 눈은 샛별 같고, 입술은 주사(朱砂)를 바른 것 같고, 키는 크도 작도 아니한 미남자(美男子)라. 양복은 몇 벌이나 가졌으며, 조선옷은 몇 벌이나 가지고 다니는지 며칠도리로 복색을 변하는데, 무슨 옷을 입던지 그 사람의 몸에는 그 옷을 입은 것이 맵시가 더 나는 것 같이 보이는 터이라. (95)

유아는 타인과의 마주침에서 자신이 세계의 중심이고자 하는 욕망이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 있으며, 타인이 그들 고유의 욕망에 따라 생활할 권리를 갖고 있음을 깨달으면서, 진정한 사랑과 창조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나아가 자신의 결핍과 이로 인한 수치의 감정을 받아들임으로써 타인과 지속적인 상호의존의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다.[19] 그러나 원초적 수치심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이 이상적인 성적 대상에 대해 품는 소망은 어린 시절 나르시시즘의 형태를 띤다. 서일순이 옥련에 대해 품는 환상, 성적 대상에 대한 소망은 이런 의미의 순전히 일방적인 주관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 잠만 들면 옥련이를 만나보고, 잠을 깨면 옥련이가 간 곳 없으니, 밤낮없이 잠만 들면 좋으련마는 생각이 간절할 때는 잠들기도 어려우니 잠 못 자는 심병이

18) 같은 책, 243-244면, 246면.
19) 같은 책, 238-240면.

라.~(…)~오냐, 옥련의 마음도 모를 것 없다. 내 옆에 앉았다가 살며시 나가서 나무 밑에 선 것은 까닭이 있는 것인데, 눈치 없는 이놈이 삼십분 동안이나 되도록 아니 나갔으니 제 마음도 좀 답답하였을 것이었다. 일은 꼭 그러한 일이야. 내가 휘장 밖에만 나서가던 암호(暗號)로 던지려고 동골동골하고 반질반질하고 맵시 좋고 조그마한 돌 하나를 들고 일심전력으로 기다리고 있다가, 나를 보고 툭 던지는 그 돌이 넘고 처지도 아니하고 줌 앞 줌 뒤로도 아니 가고 내 정신 모여 있는 머리 위에 떨어졌으니 던지기도 묘하게 던졌거니와, 받기도 썩 잘 받았지. 내가 좀 아픈 것은 관계치 아니하나, 옥련이가 무안한 모양이 있는 것이 가엾어. 영서일점(靈犀一點)이 가만히 서로 통한다는 것은 옛사람의 글도 있거니와, 사람의 마음이란 것은 서로 통하기가 쉬운 것인즉, 옥련의 마음은 내가 알고, 내 마음이 이렇게 간절한 것은 옥련이가 모를 리 없으렷다. 옥련이가 내 마음을 알고나 있는 집을 아는 터에 나를 찾아오지 못하는 것은 부끄러운 태도 많은 계집의 본색이렷다."~(…)~사람인가? 바람인가? 만일 사람이면 정녕 옥련이지! 밤중에 나를 찾아오느라고 나비 잡으려는 걸음같이 가만 가만히 걸어올 사람이야 옥련 이외에 누가 있나? 나를 다시 없이 생각하고, 다시 없이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나를 찾아오는 걸음걸이라. 내가 그런 것은 용하게 알지. 어찌 생각하면 옥련이가 나를 찾아오기가 썩 어려운 일이라, 나설 리가 반무할 듯하나 꼭 그렇지 아니한 일이 있지. 내게 돌을 던지던 마음에 여기를 못 와? 옥련이는 개화한 사람이라 출입을 마음대로 하는 터에 내게를 못 와? 그러나 오늘 밤에는 아마 옥련이가 아니 들어오고, 도로 갈 리가 있나? 아니, 그것도 또 모르지. 내가 혼자 군소리하는 것을 듣고 누가 있는 줄로 알고 도로 갔나? 대체 오기만 왔으면 그렇게 쉽게 갈 리가 없지. 손님이 온 줄 알고 손 가기를 기다리느라고 어디서 숨은 것이구."~(…)~서씨 마음에 옥련이가 왔다가 부끄러워서 못 들어오고 달아난 줄로 알고, 버선바닥으로 뛰어나가서 까토리를 쫓아가는 장끼의 걸음같이 좇아가다가, (100-102)

이어서 작가는 "세상에 알기 쉬운 듯하고 알 수 없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그러한 비밀장(祕密藏)을 남에게 낱낱이 드러내 보인 사람은 서일순이요 본 사람은 최여정이라"고 서술함으로써, 가치가 주관의 인식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서일순을 희화적으로 그려내고 있다.[20] 서일순은 "구완서가 지금 죽더라도 옥련이가 수절할 사람이라 하는

20) 서씨는 낙망(落望)한 일이 있어 화중이 나는 중에 부끄러운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최씨를 대면도 하기 싫은 생각이 나는데, 자기가 혼자 군소리한 것은 얼뜬 일이나 최씨가 발자취 소리 없이

말"을 들어도 "이후에 김씨집 혈손 전할 사람은 나라고" 생각하는 유아적 망상을 되풀이한다. 나아가 세상에 내보이기 위한 '거짓된 자기'를 점차 비대화시키면서[21] 거짓된 자기와 현실의 균열을 메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된다. 최여정은 "돈이 있으면 하늘에 있는 별도 딸 터이라. 평양 성내에 있는 옥련이 하나를 돌려내기가 그리 어렵단 말이냐(106)"라는 말로 서일순의 유치한 나르시시즘을 부추겨 자신의 이익을 챙긴다. 타자를 자기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하는 에고이즘(이기주의)은 생존의 진화론적 전략으로서는 적절(자연)하지 않다.

4. 갈등하는 옥련모와 옥련

스스로의 취약함을 감추고 나르시시즘을 지키려는 감정은 때로 집단화되어 종속집단에 대한 공격과 차별로 표출되기도 한다. 지배집단은 종속집단에 취약함과 불완전함의 낙인을 찍고 이를 혐오와 부끄러움의 대상으로 만듦으로써 스스로가 종속집단과는 전혀 다른 존재이며 결코 손상되지 않은 완전한 존재임을 증명하고자 한다. 모든 사회에서 가장 쉽게 낙인의 대상이 되는 생활상태 중 하나는 빈곤이다. 빈곤한 자는 일반적으로 게으름뱅이나 부도덕한 자, 가치가 낮은 사람으로 취급된다. 종속집단에 대한 낙인찍기에 반대하는 길은 개인의 자유와 모든 시민에게 평등한 보호를 확실히 보장하는 것이다.

서일순과의 혼인 문제를 둘러싼 옥련모와 옥련의 갈등은 종속집단에 대한 배제에 기반한 전통적인 사회규범(옥련모)과 모든 이를 계층에 얽매임 없이 평등하게 대하는 윤리도덕(옥련)의 대립을 보여준다.

①"구완서의 사주(四柱)받은 일도 없고, 다만 말 한마디 약조로 십 년간 대년

남의 말을 엿듣는 것은, 하는 짓이 밉살스러운 일이라. 그 날 밤 내로 그 집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있으나 성을 내고 떠나면 남에게 한 가지 웃음밧탈이 더 될 터이요, 웃는 낯으로 떠나려 하면 주인이 만류할 터이라. 어찌하면 좋을지 생각하느라고 말없이 섰는데, 최씨가 허허 웃으면서 서씨의 손목을 끌고 방으로 들어가자 하니, 서씨가 정신 없이 하는 말이, "망할 놈, 네가 온 줄을 내가 모르고 그리할 듯하냐? 내가 너 들어보라고 한 말이다." 하며 허허 웃고 방으로 들어가서 두 사람이 마주 앉으며, 최씨는 서씨의 얼굴을 쳐다보고 서씨는 최씨의 얼굴을 쳐다보다가,(102-103)

21) マーサ・ヌスバウム, 河野哲也 外譯, 앞의 책, 2010, 248면, 250면.

(待年)한다 하니 삼십처녀(三十處女)가 어디 있단 말인가?"(131)

②(부)"~가령 옥련이 마음에는 미국에 있을 때에 정한 혼처가 제 마음에 든다 칩시다. 그러나 어미 마음에 들지 아니할 지경이면 어찌 그 어미 마음을 거스르고 제 마음대로만 하겠다고 고집부릴 수가 있소~?"(136)

(옥)"어머니 생각에는 딸을 서일순 씨에게로 시집을 보내면 은혜를 갚는 줄로 알으시오? 은혜는 은혜요, 혼인은 혼인이라. 가령 혼인을 하더라도 태산같은 은혜는 남아 있는 것이니, 혼인 언론을 하려거든 숫접게 혼인 말만 할 일이지, 은혜 갚는단 말은 왜 하시오? 만일 내가 서일순 씨에게로 시집가서 봉제사(奉祭祀)도 잘못하고, 접빈객(接賓客)도 못하고, 가도(家道)도 잘못 세우고, 서일순 씨의 속만 푹푹 썩일 지경이면, 어머니께서 서일순 씨에게 은혜를 갚았다고 큰 소리하실 것이 무엇이오? (중략) 이런 말을 어머니께서 알아들으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상 알아듣기 어려운 말도 아니올시다. 어머니가 서일순 씨로 사위를 삼으시면 은혜는 갚지 못하고 사위 덕은 많이 보시리다. 그 은혜 갚을 생각은 없고, 그 덕을 볼 생각이 있거든 나더러 서일순씨에게로 시집가라고 말씀하시오."
(부)"어미의 마음을 몰라도 분수가 있지, 내가 덕을 보려고 그러느냐?"(138)

(부)"~재작년 구월 초이튿날 내가 죽을 사람이 서서방의 손에 살아났으니 네 어미 살린 은인이라. 그 은혜보다 더 중요한 은혜가 어디 있겠느냐?"
(옥)"그러면 어머니 목숨을 구하여 드린 은인에게로 시집을 가야 옳겠습니까?"
(부)"그렇다 뿐이겠느냐."(139)

(옥)"장옥련이가 미쳤는데, 김옥련이는 아니 미칠 줄 알으시오. 부모가 야속하면 미칠 밖에 수가 있소?"
(부)"응석을 하더라도 그렇게 말하는 법은 없느니라. 네 부모의 자정(慈情)이 어떠한지 몰라서 저런 소리를 하느냐? ~학문 있는 여자는 그러하며, 명예 있는 사람은 그러하며, 개화한 출신은 그렇게 무신 한가? 이애, 나는 계집아이로 있을 때에 부모가 내 혼인말을 냅뜨면 부끄러운 마음에 그 앞에 있지도 못하고 피하여 나갔다 만일 그 혼처가 좋으니 마니 한 소리를 할 지경이면 큰 변이 나는 줄로 알고 무슨 야단이 났을는지 모를 것이다. 네 부모가 네게 어떻게 야속히 굴어서 네가 미칠 지경이야?"
(옥)"내가 아까 한 말을 변할 리가 만무하나, 아직 남편될 사람의 허락을 못 얻었으니 그 허락날 때까지만 참아 주시오. 그 허락만 나면 오늘 내로 가오리다."
(부)"아까 서서방 하던 말은 못 들었느냐?"

(옥)“아니오, 장팔의 허락을 맡아야 하겠소.” 부인이 깜짝 놀라며,
(부)“응, 고장팔의 허락이라니?”
(옥)“어머니께서 고장팔의 은혜를 잊으셨습니까? 밤은 깊어 사람의 자취는 끊어진 대동강 물에 풍덩 빠져 둥둥 떠내려가는 어머니를 건져서 회생시키던 고장팔의 은혜가 더 중합니까, 허연 대낮에 구경군이 물끓듯이 도화처에서 나 죽겠다 웨치고 나가는 어머니를 좇아가서 붙들던 서일순 씨의 은혜가 더 중합니까? (140-142)

①은 서숙자가 옥련을 서일순과 결혼시키기 위해 옥련모(최씨 부인)에게 한 말이지만, 당시의 일반적인 결혼관을 반영하고 있으며 ②의 아래 부분에 나오는 옥련모의 결혼관과도 연결된다. 옥련모는 구시대의 퍼터널리즘, 곧 온정적 간섭주의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서일순과 옥련의 결혼을 권한다. 유교적 통치 사상에서 흔히 ‘법치주의’와 대비되는 ‘덕치주의’란 넓은 의미에서 ‘덕윤리학’이다. 덕윤리학은 플라톤주의적 법실정주의와 대립한다. 법실정주의란 불변하는 사회적 규범이 실재하고 그것이 항상 인간사회를 조정하고 있다고 전제함으로써 법적인 것을 실체화한다.[22] 리버럴리즘 역시 공공세계로부터 빨셈된 문자 그대로 프라이빗이고 (‘프라이빗’이란 ‘공제당함’이라는 의미이다) 불가침으로 여겨지는 작은 의미의 세계를 확보하는 플라톤주의적인 ‘실정법’ 입장의 이론이다. 리버럴리즘은 덕윤리학을 총체로서의 인격을 도덕적 평가의 대상으로 삼아 인간을 위계화하는 도덕 이론이라고 비판한다.[23] 그와 반대로, 덕윤리학은 리버럴리즘(플라톤주의=로고스 중심주의)이 이성에 의해 포착되는 가치나 도덕을 불변의 성질로 파악하고, 신체감각에 의해 파악되는 다양성은 환상이나 꿈과 같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주관주의적인 근대철학을 비판한다. 덕윤리학은 개별적인 상황에서의 개별적인 인간에 대한 대처로서 윤리 도덕(생명적 규범)을 주장한다.[24] 인간관계는 일방향적・계층적인 것과 쌍방향적・상호작용적인 것으로 구별되지만, 윤리 도덕의 규범성은 상호작용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도그마화된 유교의 사

22) 河野哲也, 앞의 책, 2007, 78면.
23) 稲葉振一郎, 『宇宙倫理學入門』, ナカニシヤ出版, 2016, 160-161면.
24) 河野哲也, 앞의 책, 2007, 14-15면.

회규범은 사람들의 상호적 관계성보다는 계층적 관계성에 따른 서열을 중요시하였다.

옥련의 모친 최씨 부인이 옥련에게 은인인 서일순과의 혼인을 권하면서도, 더한 은혜를 베푼 고장팔과의 결혼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 것은 그녀가 인간을 위계화하는 유교적 인간관에 기초해 있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가치를 신분적 위계에 귀속시키는 윤리에 기반한 옥련모로서는 "냉면집에서 중놈이 질하고 있"는 고장팔은 제구실을 할 수 있는 '인격' 주체가 아니기에 그를 사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반면 옥련은 은인 서일순과의 결혼을 권하는 모친을 향해 "장팔의 허락을 맡아야 하겠소"라고 강력히 대응한다. 옥련은 고장팔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고장팔이는 가난한 상놈이요, 서일순 씨는 재물 많은 양반이라. 가난한 상놈의 은혜는 커도 잊어버리고, 부자 양반의 은혜는 적어도 아니 갚을 수 없단 말씀이오니까? 고장팔이는 불쌍한 인생이라. 작년 가을에 계집 죽고 삼간 초가 팔아먹고 냉면(冷麪)집에 가서 중놈이질을 하고 있다 하니, 남의 신세를 갚더라도 불쌍한 사람에게 먼저 갚을 것이라.(142)

상기 인용문에 이어 옥련은 "내가 은혜를 갚을 마음으로 고장팔의 계집이 될 지경이면, 구완서가 그 말 듣는 그 날로 내게 고맙다는 편지를 할 사람이라"고 단언한다. 옥련은 구완서를 모방해야 할 규범으로 삼아 자신과 동일화하고 있다. 가치나 규범은 개인의 외부에 있으며, 개인은 그것을 참조하여 거기에 대한 적응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25] 미국에서 구완서와 함께 사회를 학습하고 자아를 확립한 옥련은 구완서의 자신과 상대를 대등하게 간주하는 호혜적인 행동양식으로서의 연민과 이웃사랑의 공감 능력에 기반한 쌍방향적·상호작용적인 생태학적 생명의 규범에 공명하고 있는 것이다.

5. 공명하는 김옥련과 구완서

25) 河野哲也, 앞의 책, 2011, 133면.

「모란봉」이 제기하는 문제는 부모가 결정하는 결혼이냐, 당사자끼리의 연애에 의한 자유결혼이냐에 놓여있지 않다. 『혈의 누』에서 옥련과 구완서가 대화를 나눌 때 '수작(酬酌)하는 방식'을 놓고 고민하는 것은 구완서 뿐이며, 옥련은 시종일관 구완서를 존대한다. 옥련은 구완서나 김관일에 비해 서양 학문을 빠르게 배웠지만 실제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못한)다. '옥련의 부모가 워싱턴에서 만나고, 최주사와 옥련의 부모가 구완서와 혼담을 나누는 장면에서 옥련은 그저 침묵을 지킬 뿐이'었다.[26] 또한 '조선의 개화'를 위해서는 과부의 재혼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작가 이인직의 주장도 서양사상을 받아들인 남성의 이상론에 그쳤고, 실제로 이인직이 재현한 신소설의 여성은 '개화 지식인 남성에 의해 공론장으로 호출되어 가시화된 사회적 행위자'에 불과했다.[27] 그러면 구완서와 옥련의 관계는 이전의 남존여비(절대적 복종설)와 무엇이 다른 것일까? 다음은 『혈의 누』에서 옥련과 구완서가 귀국 후의 포부를 밝히는 장면이다.

> 구씨의 목적은 공부를 힘써 하여 귀국한 뒤에 우리나라를 독일국 같이 연방도를 삼되, 일본과 만주를 한데 합하여 문명한 강국을 만들고자 하는 비사맥(比斯麥) 같은 마음이요, 옥련이는 공부를 힘써 하여 귀국한 뒤에 우리나라 부인의 지식을 넓혀서 남자에게 압제받지 말고 남자와 동등 권리를 찾게 하며, 또 부인도 나라에 유익한 백성이 되고 사회상에 명예 있는 사람이 되도록 교육할 마음이라. 세상에 제 목적을 제가 자기하는 것같이 즐거운 일은 다시 없는지라.(50)

구완서는 "문명한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옥련이 부인교육을 담당하면서 사회에 공헌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부부가 서로 의지하는 상호부조적 관계를 요구하는 새로운 결혼관이다.

「모란봉」에 등장하는 장옥련도 부인문제와 연결된다. 장옥련의 개인사는 『혈의 누』에 그려진 옥련모(최춘애)의 개인사와도 겹쳐 있다.[28] 최춘애는 일곱

---

26) 박재익, 「계몽 이야기의 한 양상: 이인직의 〈혈의누〉와 〈귀의성〉, 〈은세계〉를 중심으로」, 『국제한인문학』 19, 국제한인문학회, 2017, 77-107면, 86면.

27) 이경림, 「'인민사회'의 출현—이인직『혈의누』론」, 『한국학 연구』 38,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15, 185면.

살에 모친을 여의고 계모의 냉대를 받으며 자랐다. 장옥련도 '부모 슬하에서 금옥같이 사랑을 받고 자랐'(79)지만 부친 장치중이 '평양 기생 농선을 첩으로 들어' 앉히면서 수난을 겪는다. '마음은 아귀 귀신같이 모진' 농선은 '팔난봉 된 동생'(82)을 시켜 장씨의 부인 안씨가 부정한 짓을 한 것처럼 꾸미고, 이런 모함을 받은 안씨는 '철천지한'(86)을 품고 대동강에 투신자살한다. 농선과 부친의 험담을 우연히 엿들은 장옥련도 '대동강에 풍덩 빠져 죽'(86)을 것을 결심하고 집을 나갔다가 한밤중의 그림자를 '내 몸에 침범하려는 형상'으로 여겨 겁을 먹고 '정신이 들락날락하는 미친 계집아이'(87)가 되고 말았다. 장옥련의 모친 안씨 부인은 이미 병상에서 이렇게 될 것을 예언했었다.

> 내가 죽으면 저것이 어떠한 계모 손에 고생을 할고! 내 앞에서 응석만 하던 것이 계모 앞에서 눈살을 맞고 자라노라면 설움도 설움이려니와, 주접이 오죽 들고! 너의 아버지께서 지금은 너를 세상에서 다시없는 것같이 귀애하셨지마는, 후취 마누라에게 혹하시면 전실 자식이 눈에 보일는지?(80)

소설에서 당시 여성을 주인공으로 삼고 구시대의 가족제도에서 수난받는 '부인문제'를 취급한 것은 작가의 개화사상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인직의 개화사상은 구제도 타파의 풍조에서 태어난 현실성을 동반하지 않은 추상적 진보성을 띠었다. 에도 시대의 일본 여성, 특히 무가(武家)의 여성은 집안에서의 의리, 남편에 대한 복종, 시부모를 위한 봉사에 강한 속박을 받아 왔다. 이러한 여성의 예속은 에도시대를 지배했던 유교적 교육과 여성관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 결과 남녀동권이나 여성 교육의 권리를 요구하는 데서 시작된 구미의 여성운동과는 달리, 일본의 부인문제는 가정에서의 여성의 처지, 특히 부부간의 평등이 최초의 초점이 됐다.[29] 그렇다면 「모란봉」에서 자유결혼은 어떻게 그려져 있을까? 「모란봉」에는 자유결혼이라는 말이 5번 나온다. 신소설은 '신분 질서의 폐기를 명시적으로 선언한 갑오개혁 이후, 사민평등이라는 새로운 질서에 기반한 근대적인 삶의 장으로서 사회가 적극적으로 상

28) 최진옥, 앞의 글, 2015, 39면.
29) 鈴木朋子, 「明治の婦人運動と元良勇次郎」, 『著作集 別巻2』, 2017, 115-116면.

상되기 시작했'을 무렵을 시대 배경으로 하고 있다.[30] 김옥련의 부친 김광일은 '구완서가 아직 젊은 아이라 일시 언약을 믿고 몇만 리를 떠나 있으면 혹 마음이 변치나 아니할까 염려'하고 또한 '십 년 동안에 세상일이 어떻게 변할는지 측량치 못할 일이라'(73-74)고 걱정하면서도 구완서가 '조선 습관을 버리고 자유결혼'(75)할 것을 용인했었다. '조선의 습관'의 경시는, 보다 선한 행위의 양식과 보편적으로 채용되기에 적합한 사회규범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반면 구완서의 부친 구연식은 우유부단하지만 '완고'(158)한 보수적 인물이다. 그는 자식의 편지로 옥련이 '조선부인 사회에서 본받을 만한 계집아이'(163)라고 생각했었지만, '자유결혼'을 이해할 수 없다. 한편 옥련 자신은 구완서와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한다.

> (…) 세상 사람의 부부간 깊은 정리(情理)는 어떠한 것인지, 나는 같은 미가녀(未嫁女)의 알 수 없는 일이나, 대체 부부 간 정의(情誼)는 남녀 간 치정(痴情)으로 생긴 정의어니와, 나는 구완서에게 의리로 생긴 정리요, 교분으로 생긴 정이요, 품행을 서로 알고, 인격을 서로 알고, 심지(心地)가 서로 같은 것으로 부지중(不知中)에 정이 들고, 부지중에 정이 깊었으니, 유별한 남녀 간의 높고 조촐한 정이라, 그렇게 정든 사람을 떼쳐놓고, 혼자 가는 내 마음이야 (…) (78)

인용문에서는 '정의'와 '정리'가 구분되어 있다. '정의(情誼)'는 남과 사귈 때의 감정인데 '치정'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반면 '정리'는 인정과 도리를 뜻하며, '구완서의 은혜를 입어 화성돈에 유학하던 옥련'(72)의 의리에서 생긴 애정을 의미한다. 「모란봉」의 옥련은 구완서와의 애정이 치정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유별한 남녀 간의 높고 조촐한 정', 즉 정신적 욕구 충족(공감)을 중시하는 질적 공리주의에 있음을 강조한다. 사회적 행동은 욕구 충족에 있지만, 그 충족은 대인승인 욕구의 충족(도리적 행동)을 지향하는 것이다.

> 남자는 장가 들고, 여자는 시집가는 것이 각기 자기 행복(自己幸福)을 위하는 일이지, 누가 아내를 위하여 장가드는 사람이 있으면, 남편을 위하여 시집가는

30) 李京林, 「이해조 신소설에 나타난 근대 사회 윤리로서의 '신의(信義)'의 형성화 방식에 관하여」, 『인문논총』 73-2,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2016, 296면.

> 사람이 있으리까? 남편 된 사람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자기 가정의 즐거운 마음에서 나온 것이요, 아내 된 사람이 남편을 사랑하는 것도 가정의 즐거운 마음에서 나는 것이니, 그것은 사람이 각기 행복을 구하는 분자의 단합이 완전할 뿐이라.

밀은 만인이 자유롭게 자기 고유의 행복을 추구하고 누리는 상태를 최대 행복 상태라고 부르며,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다른 선까지 이어짐을 강조했다. 옥련도 애정이 존재할 때는 당사자 '각기 자기 행복(自己幸福)'에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동시에 이를 통해 '각기 행복을 구하는 분자의 단합이 완전'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은 나 자신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중요한 동반자가 될 수 있다. 우리 각자가 만일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인간의 삶의 행로에는 감정이 큰 역할을 한다. 그 삶이란 자신이 충분히 통제할 수 없는 상태로 중요한 사상이 일어나 버리는 세계 속에 있는 상처 받기 쉬운 동물의 삶이다. 열일곱 살이 된 김옥련은 이렇게 생각한다.

> 모란봉아, 물어 보자. 인생화복(人生禍福)에 알거든 내게 말 좀 하여 주려므나. 옥련의 지나간 십 년이 그러하니, 이후 십 년은 어떠할지, 각골난망(刻骨難忘)의 은인 구완서와 십 년간 이별이라. 어와 가련하다, 옥련의 신세! 가련하다, 옥련의 육체(肉體)는 떠날 리(離)자를 가지고 있고, 옥련의 정신은 근심 수(愁)자가 맺혀 있으니, 옥련의 일평생은 이별하는 근심으로 지내라는 것인가.(98-99)

'사람은 모두 인생의 비참함, 슬픔, 병, 결핍 그리고 온갖 종류의 고통에 노출되어 있다. 우리를 사회적으로 만드는 것은 인간의 나약함이다. 우리의 마음을 인간애로 향하게 하는 것은 인간의 공통된 비참함이다. 만약 우리가 인간이 아니었다면 인간애에 대해 느끼는 바가 아무것도 없었을 것이다. 애정은 모두 부족한 것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31] 이렇게 해서 우리의 나약함에서 우리의 덧없는 행복이 생긴다. 진정한 사랑은 나르시시즘적인 융합

31) ジャン・ジャック・ルソー, 『エミール』, 第四編 ; マーサ・ヌスバウム, 河野哲也 외 譯, 앞의 책, 2010, ii면.

이나 타인을 지배하고자 하는 격분을 통해서가 아니라 교류와 상호성을 통해서 서서히 성취된다. 거만하고 완전성을 요구하는 자아가 아니라 자신을 불완전하고 하찮은 인간으로서 이해하고 수용함으로써 사랑이 성취될 수 있는 것이다.[32] 이런 점에서 「모란봉」이 추구하는 바는 '비분강개의 정치'에서 '연민이나 사랑을 전경화시킨 정치'로의 전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6. 결론

이인직은 문명화된 근대 '사회'라는 새로운 장과 그 속에서 적합한 도덕 '감정'을 작품으로 형상화하는 데 힘썼다.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공감의 감정(사회성)은 행위자가 얼굴표정이나 신체 동작을 공진적·공명적으로 모방하여 관여해 가는 것, 즉 타인과의 사이에 구축해 가는 관계성(間身體性)으로부터 시작된다. 데카르트적인 마음(주체)이란 신체로부터 분리 가능함과 동시에 신체의 모든 곳에 명령을 내리는 사령탑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한다. 이 플라톤주의에 유래하는 '물체를 움직이는 기호(말)'로서의 마음에는 신체가 없다. 신체 없는 존재는 공감(모방)할 수 없다. 텍스트 개념에서 '작자의 죽음'이라는 표현으로 의해 죽음을 선고받은 것은 이러한 데카르트에서 비롯된 근대철학의 마음 개념이었다.

「모란봉」에는 구완서에 대한 옥련의 '은혜'를 비롯해 54차례나 '은혜'라는 말이 나온다. 도덕의 규범성은 (선한 것이든 나쁜 것이든) 상대방에게 받은 것을 상대방에게 답례하고, 자신과 상대가 대등하려는 인간의 사회적 자연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된 것이다. 상호작용의 두 가지 측면, 즉 은혜의 보답이든 복수든 원리는 교환의 원리이다. 그러나 인간 행동의 특징적인 점은 자신의 욕구 충족에 반하면서까지 사회규범을 우선시하는 행동을 취하는 데 있다. 감정에 관해서도 그것이 대인 관계적 태도인 한 사회의 위상과 무관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분노란 내적인 흥분상태인 감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대상에 대한 모종의 태도나 자세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어떤 행위에 대한 부당

32) 같은 책, 2010, 240면.

하다는 사회적 규범과 그러한 행위를 한 타인을 비난하는 태도가 포함된다. 따라서 심리작용은 대상 세계와는 분리된 주관의 내적 영역의 사상(event)이 아니라 세계와의 상호작용(관계성=문맥성) 속에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 생태학적 입장에서 인격 동일성이란 다양한 환경과 대치하고 있는 다양한 자신을 조정하는 공감능력(감정성)에 그 성패가 달려 있다. 이인직은 「모란봉」에서 선악관념이 도덕의 기초로서의 공감과 상호작용에서 비롯되었음을 제기하였다. 옥련은 계층에 얽매이지 않는 인간의 사회적 자연인 윤리도덕에 대한 '신념'을 추구한다. 반면 가부장제 사회의 남성중심적 문화와 규범에 물든 장치일이나 옥련에 대해 자기중심적인 소망을 지닌 서일순은 타인을 지배하려는 욕망이 좌절될 때 나르시시즘적 수치심(주관주의에 의한 독아론적 에고이즘)을 드러낸다. 타인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에고이즘(이기주의)은 생존의 진화론적 전략으로 적절(자연)하지 않다.

인간관계는 일방향적・계층적인 것과 쌍방향적・상호작용적인 것으로 구별되지만, 윤리 도덕의 규범성은 상호작용성에서 온 것이다. 서일순과의 혼인문제를 둘러싼 옥련의 어머니와 옥련의 갈등은 종속집단에 대한 배제를 기반으로 하는 전통적, 유교적 사회규범(옥련모)과 모든 사람을 계층에 얽매이지 않고 평등하게 대하는 인간적, 자연적 윤리도덕(옥련)의 대립을 보여준다. 옥련은 은인 서일순과의 결혼을 권하는 모친을 향해 "장팔의 허락을 맡아야 하겠소."라고 강력히 대응하고, "내가 은혜를 갚을 마음으로 고장팔의 계집이 될 지경이면, 구완서가 그 말 듣는 그 날로 내가 고맙다는 편지를 할 사람이라"고 단언했다. 옥련은 구체적 타자인 구완서를 모방해야 할 규범으로서 자신과 동일화한 것이다. 가치나 규범은 개인의 외부에 있으며, 개인은 그것을 참조하여 거기에 대한 적응을 목표로 한다. 옥련은 구완서의 자신과 상대를 대등하게 접하는 호혜적인 행동양식인 연민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공감 능력에 기초한 쌍방향적・상호작용적인 생태학적 생명 규범을 체현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모란봉」이 추구하는 바는 '비분강개의 정치'에서 '연민과 사랑을 전경화시킨 정치'로의 전환으로 풀이된다.

▮ 참고문헌

이인직, 권영민 교열, 『혈의 누』, 서울대 출판부, 2001.
「雙玉淚의 次에는 牡丹峰」, 『每日申報』, 1913.2.4.

김윤식, 『한국 근대소설사연구』, 을유문화사, 1986.
田尻浩幸, 『이인직 연구』, 국학자료원, 2006.
박재익, 「계몽 이야기의 한 양상: 이인직의 〈血의淚〉와 〈鬼의聲〉, 〈銀世界〉를 중심으로」, 『국제한인문학』 19, 국제한인문학회, 2017, 77-107면.
李京林, 「이해조 신소설에 나타난 근대 사회 윤리로서의 '신의(信義)'의 형성화 방식에 관하여」, 『인문논총』 73-2,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2016, 289-318면.
이경림, 「'인민사회'의 출현—이인직『혈의 누』론」, 『한국학연구』 38,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15, 153-191면.
최진옥, 「신소설에 나타난 법의식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5.

加藤圭木, 「日露戦争下における朝鮮東北部の「軍政」」, 『一橋社会科学』 第8巻, 2016年10月, pp.37-56.
エドワード・S・リード, 村田純一・染谷昌義・鈴木貴之 譯, 『魂から心へ 心理學の誕生』, 講談社學術文庫, 2020.
監修 : 大山正, 編輯主幹 : 大泉溥, 『元良勇次郎 著作集 第9卷』, クレス出版, 2015.
監修 : 大山正, 編輯主幹 : 大泉溥, 『元良勇次郎 著作集 別卷2』, クレス出版, 2017.
マーサ・ヌスバウム, 河野哲也 外譯, 『感情と法—現在アメリカ社會の政治的リベラリズム』, 慶應義塾大學 出版會, 2010.
河野哲也, 『エコロジカルな心の哲學 - ギブソンの實在論から』, 勁草書房, 2003.
河野哲也, 『善惡は實在するか アフォーダンスの倫理學』, 講談社, 2007.
河野哲也, 『エコロジカル・セルフ』, ナカニシヤ出版, 2011.
稻葉振一郎, 『宇宙倫理學入門』, ナカニシヤ出版, 2016.

【Abstract】

Lee In-jik's Moranbong and the Norm of Ecological Life —What We See in Nussbaum's 'Emotions and Law'—

Tajiri, Hiroyuki*

Lee In-jik worked hard to embody the new chapter of a civilized modern 'society' and the emotion of 'empathy' that was appropriate in it. In Moranbong, Lee In-jik suggested that the idea of good and evil originated from empathy and interaction as the basis of morality. Okryeon pursues a 'belief' in ethical morality, which is the social nature of human beings that are not bound by class. On the other hand, Jang Chi-il, who is imbued with the male-centered culture and norms of a patriarchal society, and Seo Il-soon, who entertains a self-centered wish for Okryeon, reveal a narcissistic shame (self-centered egoism driven by subjectivism) when their desire to dominate others is frustrated. The conflict between Okryeon's mother and Okryeon over the marriage issue with Seo Il-soon shows the conflict between traditional and Confucian social norms based on the exclusion of subordinate groups (Okryeon's mother) and human and natural ethical morality that treat everyone equally without being bound by class (Okryeon). Gu Wan-seo and Okryeon, who learned society and built their self in the United States, embody the life norm of bilateral and interactive naturalism based on compassion and empathy, which are reciprocal behaviors that treat themselves and others on an equal basis. From this point of view, what Moranbong pursues is interpreted as a shift from 'politics of sorrowful indignation' to 'politics that is foregrounded in compassion and love'.

Keywords: Emotion, body, ecological psychology, belief, empathy, grace, identification, interaction, nusbaum, shame, narcissism, egoism, animal, grace, Russo-Japanese war, event.

* Ph.D., Dep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Korea Univ.

접수일: 2021.12.27. ‖ 심사일: 2022.01.11. ‖ 게재확정일: 2022.02.20.